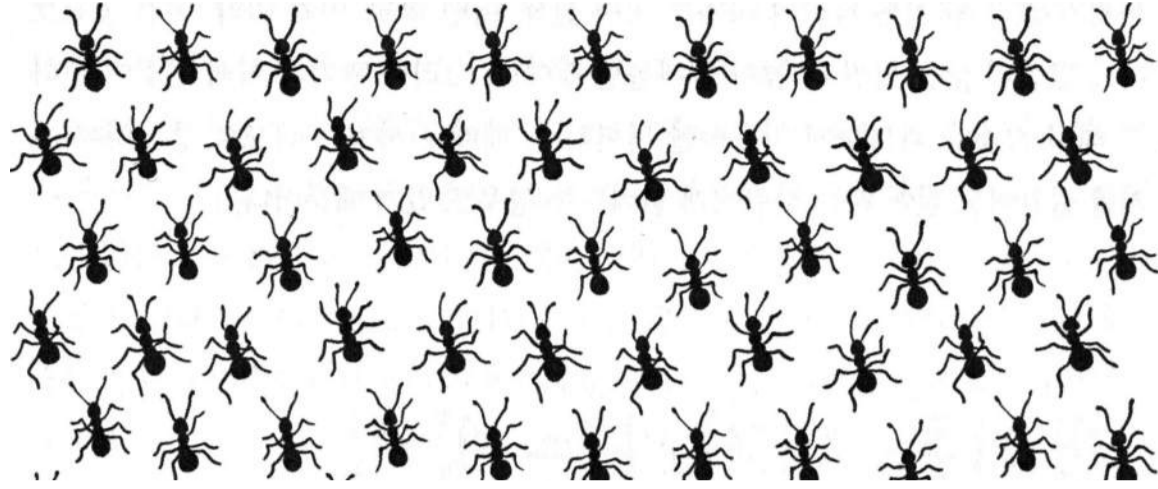


베르베르가 풀어낸 542개의 '알쓸신잡'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

베르나르 베르베르 지음, 이세욱 외 옮김

지난 1991년 소설 '개미'를 선보이며 전 세계 독자를 사로잡은 작가가 있다. 바로 베르나르 베르베르. 이후 영계 탐사단을 조재로 한 '타나토노트', 고양이와 눈으로 인간 세상을 바라본 '고양이', 기발한 상상력이 빛나는 단편집 '나무' 등 많은 베스트셀러를 펴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펴낸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은 542 항목의 다양한 지식을 담고 있다. '개미를 제거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인 박하를 이용해 퇴치하는 법 등이 수록돼 있다.

적인 지식 습득 경로, 일테면 학교 공부나 신문, TV 밖에서 누구에게 들었던 것이다. 누군가로부터 들은 '깜짝 놀랄' 이야기가 일종의 '병행 지식'이 됐다고 볼 수 있다. '기발한 농담이나 미술을 외워 두었다 나중에 써먹듯이 이 이야기들도 제대로 수집해 두어야겠다'는 생각이 지금이 책의 토대가 된 것이다.

책을 구성하는 큰 카테고리라는 사투 특이하다. '죽음', '망울림', '초소형 인간', '신들의 신비', '신들의 숨결' 등이다. 각각의 카테고리 아래에는 수십 개의 작은 항목이 소주제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큰 카테고리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기술돼 있다.

예를 들면 '죽음'이라는 챕터에는 모두 28개의 소주제들이 나열돼 있다. 첫 번째의 소주제 '첫 문장과 끝 문장'에는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성경), '강독에 언니와 나란히 앉아 있던 엘리스는 아무 할 일이 없다는 게 슬슬 지겨워졌다'(루이

스 캐럴,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 등이 그것이다.

책은 과학, 역사, 문화, 신화, 연금술, 처세와 게임까지 다양한 분야를 아우른다. 박학다식한 베르베르의 면모가 여실히 드러나는데, 독자들은 그의 상상력에 무릎을 치거나 불현듯 깨달음을 얻기도 한다.

특히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북아메리카 원주민이나 아프리카, 폴네시아 부족들의 풍습과 오래된 지혜를 소개하는 대목도 있다. 생소한 분야를 접하고 알아가는 재미가 적지 않다. 흔히 말하는 '알쓸신잡' (알아두면 쓸모 있는 신비한 잡학사전) 또는 '지대넓얏' (지적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같은 효과를 발휘한다.

아울러 책에는 모두 300컷 이상의 고풍스러운 삽화가 수록돼 있어 이해를 돕는다. 단순한 이해를 넘어 기발한 상상력과 재미를 유인한다는 점에서 삽화는 본래의 기능을 넘는다.

〈열린책들·1만78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까지=연세대 박사과정 중에 있는 정연욱이 16개월 동안 2000명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한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 325명을 만나 심층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물을 담은 책이다. 저자는 인플루언서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실감 나게 전달하기 위해 물질파, 육체파, 정신파 등 유형별로 가상 캐릭터를 만들어 픽션(사실에 기반한 픽션) 방식으로 그들의 삶을 전한다.

〈천년의상상·1만7500원〉

▲나는 보좌관이야=17년을 보좌관으로 살아온 임철의 에세이. 저자가 보좌관으로서 살아온 동안의 치열함을 담아낸 기록이자 소중한 사람들과 오래도록 함께하기 위해 노력하는 평범한 한 남자의 고백이다. 어떻게 보좌관이 되었고 보좌관으로서 어떤 일을 했는지는 물론 현장에 몸담으며 겪은 정치권의 말초신경, 그 최전선을 생생하게 이야기한다.

〈구월스북스·1만5000원〉

▲복잡한 세상을 횡단하여 광활한 우주로 들어가는 사과책=천문학자 이명현과 정치학자 문병철의 세상에서 가장 친절하고 매력적인 독자 로드맵. 천문학자는 과학책을 통해 과학의 경이로움을 발견하는 즐거움을, 정치학자는 사회과학책을 통해 세계관을 넓히고 통찰력을 키워내는 책임 기 방법을 알려준다. 〈유영·1만7000원〉



▲상트페테르부르크=러시아 표트르 대제가 '유럽으로 향하는 창'으로 삼아 1703년 건설한 도시인 상트페테르부르크 역사를 정리했다. 저자는 모스크바보다 유럽 여러 나라와 가까운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입지를 보면 기후가 좋지 않아 도시를 건설하기에 좋지 않았지만, 새로운 러시아를 만들겠다는 열망이 신도시를 낳았다고 설명한다. 굴곡진 시간 속에서 주목할 만한 사건을 뽑아 담았다. 〈삼인·3만2000원〉

어린이·청소년 책



▲조약돌 주우러 갈까?=안 에르보의 '아침밥 이야기' 두 번째 책이다. 첫 번째 책에서 꼭두새벽을 찾으러 여행을 떠난 주인공 아침밥과 쌀통이가 조약돌들이 별처럼 많은 계곡으로 독자들을 초대한다. 길을 때마다 숨겨진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산책길의 매력과 향기도 빛깔도 다양한 꽃들을 발견했을 때의 반가움, 발 끝에 닿는 조약돌의 느낌 등을 이야기한다. 〈한울림어린이·1만3000원〉

▲무민 가족과 보이지 않는 손님=토베 얀손의 무민 연작소설 가운데 단편 일곱 편을 엮은 '보이지 않는 아이'의 표제작을 새롭게 꾸민 그림책이다. 틀에 박힌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살던 무민 골짜기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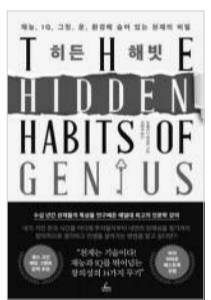
민들이 한순간 경험으로 진짜 자기 모습을 찾는 과정을 그린다. 냉대와 무관심에 움츠러든 나머지 모습을 감춰 버린 님니의 이야기로 무민 시리즈 특유의 매력력을 보여준다. 〈작가정신·1만2000원〉

▲우당탕 마을의 꿈 도둑=배혜영 작가가 추리소설 형식으로 '꿈'을 이야기한다. 꿈을 도둑맞은 아이들이 꿈 도둑을 찾아 나서며 벌어지는 이야기로, 마지막까지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꿈 도둑의 행방을 쫓는 묘미가 가득하다. 마을 아이들은 여수 경찰관과 함께 도둑맞은 꿈 사건의 진상을 밝혀 나간다. 아이들은 꿈 도둑을 잡고 꿈을 찾을 수 있을까? 〈뜨인돌어린이·1만1000원〉

독창성·상상력·반골기질·집착...천재들의 14가지 습관

히든 해빗

크레이그 라이트 지음·이영식 옮김



"재능 있는 사람은 아무도 맞힐 수 없는 과녁을 맞고, 천재성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과녁을 맞는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말이다. 우리가 흔히 천재를 언급할 때 가장 먼저 떠올려 볼 수 있는 게 '재능'이지만 '히든 해빗'의 저자 크레이그 라이트는 재능과 천재성은 전혀 별개의 개념이라고 말한다. 쇼펜하우어의 언급처럼 재능 있는 사람은 누구나 금방 알 수 있는 명확한 세상을 능수능란하게 다루는데 반해 천재는 다른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바라본다는 설명이다.

천재란 누구이며,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 천재들이 갖고 있는 습관들은 무엇일까.

새 책 '히든 해빗-IQ, 그릿, 운, 환경에 숨어 있는 천재

의 비밀'은 천재란 어떤 개념으로 통용되고 있는지 알아보고 그들에 대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오해를 분석한다. 더불어 그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습관을 파헤쳐 우리가 습득해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책이다.

예일대 음악대학 학장을 역임하고 명예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저자 크레이그 라이트는 수십년간 천재를 연구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특성을 탐구해왔다. 음악과 심리학을 결합해 천재들의 특성을 파헤친 그의 '천재 강좌'는 예일대 인문학 강의 중 최고의 인기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고 중국 온라인 강의 TOP4를 차지하는 등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었다.

음악 전공자답게 그가 먼저 주목한 이는 모차르트였다. 이후 플로렌스 여행을 계기로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연구하게 됐고 탐구가 점점 확장됐다. 책은 아인슈타인, 베토벤, 피카소, 스티브 잡스 등 역사에서 위대한 업적을 이룬 인물, 현존하는 인물들의 흥미로운 일화를 통해 천재에 대한 다채로운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에 따르면 천재는 시간과 문화권을 초월해 사회에 상당한 수준의 변화를 몰고 온다. 간단히 말해 위대한

천재는 가장 오랜 기간에 걸쳐서 가장 많은 사람에게 가장 커다란 충격을 준다. 물론 이런 독창적인 사상가의 움직임은 이들을 받아들이는 수용적인 사회가 전제됐을 때 의미가 있다.

저자는 천재들의 공통적인 습관을 14개 주제로 나눠 소개한다. 그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꼽는 것 중의 하나는 독창성, 즉 오리지널리티다. 또 아이처럼 순진무구한 상상력, 채워지지 않는 호기심, 창의적인 부적응, 반골기질, 경계를 초월하는 생각, 반대로 나아가는 행동, 집착, 이완, 집중 등에 대해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설명한다. 그밖에 화가 젠틸레스키, 작가 버지니아 울프 등 오랫동안 역사가 외면해 왔던 여성 천재들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다.

그는 실천적인 방법을 몇 가지 제시한다. 뛰어난 통찰을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창의적인 이완에 몰두하는 것으로 산책이나 샤워를 하거나, 펜과 종이를 접대달에 두고 밤에 잠을 푹 자면 된다. 천재가 될 가능성을 높이고 싶으면 대도시나 대학교가 있는 마을로 이사하라고 말한다.

〈청림출판·1만8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하시고 전화주세요!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